

## 북한이탈여성의 성지식 실태 연구

한 인 영<sup>†</sup>

구 현 자

오 선 경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그리스도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최근 한국입국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북한이탈여성들의 남한사회 적응 및 정착, 정신건강 등에 대한 연구는 꾸준히 진행되어 왔지만, 성 관련 연구는 기초자료의 부재로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북한이탈여성의 성지식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북한여성의 성 지식 수준을 파악하고, 북한에서 성교육 여부와 국내 성교육 만족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하나원에 입소한 북한이탈여성 320명을 대상으로 임신과 출산, 성 행위, 성 기관, 성병과 성 건강 등의 성 지식, 북한에서의 성교육 경험 정도, 국내 성교육에 대한 만족도 영역을 설문지 형식으로 전수조사 하여 기초자료를 얻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첫째, 북한이탈여성의 성 지식 수준은 매우 낮았으며, 임신 및 출산, 성 행위, 성 기관, 성 건강 등의 하위 영역에서는 성 행위에 대한 지식수준이 가장 높은 반면, 임신 및 출산에 대한 지식수준이 제일 낮았다. 그리고 연령이 높을수록, 미혼보다 결혼경험자가 성 지식 수준이 높았다. 성 교육에 있어서 북한이탈여성들은 북한에서 성교육을 받은 경험이 거의 없었고, 하나원이 실시한 성교육에 대해서는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이 낮게 나타났다. 그리고 북한이탈여성들은 현재 국내에서의 성 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특히 피임, 신체구조, 생리, 임신, 이성교제 등의 성교육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 나타난 결과를 근거로 향후 북한이탈여성의 성문화에 맞는 성교육의 개발과 성 지식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의 필요성을 제언하였다.

주요어 :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여성, 새터민여성, 성지식, 성교육

<sup>†</sup> 교신저자 : 한인영,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서울시 서대문구 대현동 11-1, 이화여자대학교 이화포스콰이어 연구동 406호, Tel : 3277-2253, E-mail : yhan@ewha.ac.kr

1990년대 북한의 식량난을 피해 중국이나 제3국을 통해 한국으로 입국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수가 1998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02년부터는 매년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북한이탈여성들의 경우 1993년 이전에는 북한이탈주민의 7.3%인 것에 비해 2002년부터 북한이탈남성의 입국자 수를 추월하여, 2002년 북한이탈여성의 비율이 전체 규모의 55.5%에 이르렀다. 2008년에도 북한이탈주민 2,809명 중 여성이 2,197명으로 78.3%를 차지하고 있다(통일부, 2009).

북한을 탈출한 여성 대부분은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 러시아 같은 제3국을 경유하여 한국에 입국하게 되는데 이들은 보통 평균적으로 약 2년 이상 중국이나 제3국에 체류하게 된다. 특히 중국을 경유할 경우 탈북여성들은 늘 긴장하면서 중국공안에 체포되어 북한으로 재 북송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감에 시달리며 숨어 지낸다. 또한 현지인 또는 조선족과의 강제결혼, 인신매매, 성매매, 매춘, 성폭력 등의 위험에도 크게 노출되어 있다(정태연, 김영만, 2004; 제인용, 제성호, 2007). 북한이탈여성 중에는 중국이나 (김태현, 노치영, 2003; 조영아, 전우택, 2005), 제 3국에서 수많은 인권유린과 심리적 외상의 스트레스 경험을 한 것으로 나타났고. 북에 두고 온 가족이나 친지에 대한 죄책감이나 고향에 대한 그리움에 대한 정서적 어려움 정도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장혜경, 김영란, 2001; 조영아, 전우택, 2005).

이새롬(2003)은 북한을 탈출한 여성들이 탈출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은 성적 경험과 인신매매되어 강제결혼을 당하거나 성산업에 종사 또는 피난과정에서 위협적인 성폭행을 당하게 되는데 이러한 성폭력적 경험들이 한국에 와

서도 자신의 뜻과 다르게 북한 남성들의 폭력적 구애를 쉽게 받아들여지고 남한 남성과의 결혼을 두려워하여 조기에 결혼 상대자를 결정하는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더 나아가 탈북과정에서 여성들만이 겪을 수 있는 인신매매나 강간 등에 의한 심리적 외상이 현재의 남한 생활 적응에 있어 북한이탈남성과 구별되는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북한이탈여성은 북한을 탈출하여 한국으로 입국하는 과정에서 여성이기 때문에 겪게 되는 불이익과 그에 따라 발생된 심리적 문제는 한국사회 정착하는 과정에서 신체적, 사회적 어려움을 동반한다. 2004년 하나원 조사에서는 많은 북한이탈여성들이 부인과 질병 등으로 고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여성보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금순(2006)은 여성보건의 인식부족으로 인해 북한이탈여성들이 만성적인 여성 질환을 앓고 있고, 이는 본인의 건강과 출산에도 악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또한 최성일(2008)은 무엇보다 북한이탈주민의 적응 측면에 있어서, 이들이 서비스를 받는 과정에서 경제, 사회, 가정생활에 있어 여성으로서 성과 관련된 문제를 겪게 된다고 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북한이탈여성에 대한 대부분 연구들은 북한이탈여성이기 때문에 겪게 되는 불이익과 이로 인해 발생하는 심리적 문제 및 심리적 외상에 대한 연구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들이 갖고 있는 성에 관련된 연구는 거의 없다.

성(sexuality)은 인간에게 있어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지만, 매우 복잡한 실체이다. 성은 두 사람이 친밀감을 나누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를 위하여 성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필요하다. 성지식은 성적 발달에 관련된

지식으로서(Winn, Roker & Coleman, 1995) 개인이 성에 대해 부모나 친구, 선후배 또는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되거나 교육을 통해 배운 직접적·간접적으로 습득한 모든 정보를 의미한다. 성에 대한 잘못된 지식습득으로 인해 그릇된 신념을 갖게 되면 성행동의 여러 측면에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맞는 대처방법을 찾지 못할 수 있다. 성에 대한 올바른 지식은 과거에 믿었던 사실이나 사회적 통념과는 거리가 먼 것들이 종종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알려진 성에 대한 정보를 그대로 수용하는 것은 위험한 일일 수 있다. 또한 성을 숨기고 부끄럽게 생각하는 태도는 성에 대한 올바른 지식에 접근할 수 없게 한다(김진영, 2005).

성지식과 관련된 여러 양적 선행연구(김명옥, 1984; 윤귀임, 1983; 이귀현, 1985; 정아영, 1991; 한경희, 1991; 박애신, 1992; 허은주, 2004; 김진희, 김경신, 2008)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청소년(중, 고, 대학생)의 경우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학년이 높을수록 성 지식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진경숙, 이효영, 이선자(2004)와 김진희와 김경신(2008)은 이성교제 경험이 있는 집단이 없는 집단보다, 성경험이 있는 그룹이 없는 그룹보다, 성관련 매체에 접촉한 경험이 있는 학생이 접촉한 경험이 없는 학생보다 전반적으로 성지식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허은주(2004)도 성관계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성관계 경험이 없는 학생들보다 성지식이 다소 높았는데 특히 성경험을 통해 얻은 것이라고 판단되는 성 건강과 성행위의 영역에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외모에 대해 관심이 낮은 집단일수록 높고, 신체적 성숙의 정도와는 관계가 없다고 하였고, 성지식의 정도가 성태도에 영향을 미치며, 순

결과 쾌락·유희적 성, 성 허용성에서 개방적인 태도를 가질수록, 자아존중감, 사회적 유능감과 대인관계 친화력 등이 성숙될수록 성지식에 대한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남식과 가영희(2005)는 한, 미 대학생의 성지식과 성태도 및 성행동의 실태와 관계를 알아보는 연구에서 성지식이 높을수록 긍정적인 성 태도를 갖고 성행동의 경험이 낮으며 성의식과 성충동이 높고 피임을 많이 한다고 하였다. 이희영(2007)의 한·중·일 청소년의 성지식, 성행동, 성행동 및 성교육의 비교연구에서 성지식의 수준이 국가별로 유의한 차이가 나지 않았지만 하위 변인들로 보면 생식기 구조와 기능, 임신 및 출산과 성행위의 변인들에 대해서는 한국이 가장 낮고 그다음 중국과 일본 순서대로 높아졌고, 성 건강 변인에서는 중국이 가장 낮고 한국, 일본 순으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과 일본에서 여자 청소년의 성지식이 남자 청소년보다 대체로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고 한 점이 기존 타 연구에서 남자 청소년이 성지식의 정도가 더 높다는 연구결과와 달랐다. 하위 변인인 생식기의 구조와 기능, 임신과 출산, 성 건강에 대한 지식 역시 한국, 일본의 여자 청소년이 높은 반면 중국 청소년의 남녀의 차이는 별로 나타나지 않았고, 한국은 성지식이 성태도와 성행동에 영향을 미치며 성지식의 변인인 생식기구조와 기능, 임신 출산, 성행위에 대한 지식 등은 한국이 가장 낮은 수준이었고 일본이 가장 높은 지식수준을 보인다고 하였다.

김현정과 이귀옥(1998)은 성지식의 정도가 건강한 발달과 건전한 사회적응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또한 성지식은 성행동으로 유발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으며, 성행동으로 유발된 후에라도 성병이나 원치 않는 임신을 예방할 수 있다고 밝혔다. Clark과 Coleman(1992)도 보고서에서 십대 임신부 60명 중 60%는 임신과 피임에 관한 지식을 무시하고 소홀히 한 것에 대해 언급하였다. 김진영(2005)도 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정확한 지식이 성 관련 문제를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하는데 도움이 되고 더 나아가 성숙한 인간이 되어 만족스럽고 책임감 있는 성생활을 영위하는데 주요한 요소가 된다고 하였다.

2000년부터 북한이탈여성들의 입국이 현저하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에 비추어 볼 때 북한이탈여성들은 북한사회에 비해 산업화, 도시화, 정보화가 급속도로 발달된 한국사회에서 이질적인 문화적 차이를 느끼게 되고, 가치관의 혼돈으로 인해 가치갈등을 겪게 된다. 또한 서양의 개방적 가치관과 문화 영향을 받은 성과 관련된 의식과 태도는 가부장적 성격이 강한 북한사회에서 생활한 북한이탈여성들에게는 성에 대한 개념과 의식에 영향을 주어 성에 대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개발과 더불어 북한이탈여성들의 성적 문제를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 즉 성적으로 취약한 환경적 특성과 지역사회에 정착하는데 겪을 수 있는 북한이탈여성의 성적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서비스 및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사회적·제도적 차원의 노력이 강조되어야 한다.

정부는 1999년 7월 북한이탈주민들이 한국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경기도 안성에 하나원을 설립하였다. 하나원 교육은 정서안정 및 건강증진, 진로지도 및 직업기초 능력훈련, 우리사회의 이해증진, 조기정착지원 등 4개 주제로 이루어져 있으며, 최근 정보화 시대로 정보 활용능력 증진을 위해 컴퓨터 자격 취득을 지원하고, 여성 증가 상황을 감안한 여성부 양성평등교육원과의 협조아래 성별 특화교육을 강화하였다. 양성평등교육과 성 교육은 정서안정 및 건강증진 내용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먼저 양성평등교육은 ‘건강한 가정’이란 내용의 한 부분으로 여성부 주관으로 진행되고 있고, 성 교육(하나원, 2009)은 ‘건강한 가정’이란 내용 안에 성욕구, 임신, 생리, 성병, 피임, 여성 질병 등의 내용이 포함되며 공중보건의와 심리상담자가

표 1. 성 지식의 하위분야별 구성 내용 (N=318)

분야	문항수	영역	평균	표준 편차	신뢰도 계수 Crombach's α
임신 및 출산	9	임신, 출산, 피임	1.91	1.69	.76
성 행위	9	성 반응 및 성욕, 자위행위	3.27	2.06	.79
생 기관	8	성 호르몬, 성 기관의 구조 성 기능 발달	2.63	1.79	.82
성병, 성건강	12	성 기능 장애 및 치료, 성병 인공유산 (임신중절)	2.63	2.28	.75
전 체	38		10.47	6.18	.85

북한이탈여성들에게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이탈여성의 성과 관련된 지원을 위한 방안탐색을 위해 현재 그들의 성지식의 수준이 어떠한지, 연령이나 결혼경험 등에 따른 성지식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 지에 대한 경험적 자료가 필요하다고 본다. 하지만 북한이탈여성들의 한국사회 정착을 위한 연구나, 북한이탈여성의 정신건강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반면, 북한이탈여성의 성문제는 관심과 구체적인 연구에 대한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대상자의 특성, 연구 대상자에 대한 접근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북한이탈여성들의 성에 대한 경험적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설사 연구가 진행되더라도 연구대상이 몇 십 명 수준으로 증가된 북한이탈여성에 대한 실증적 자료 연구(이소래, 1997; 전우택, 민성길, 1996)로는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북한이탈여성들의 성과 관련된 개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한국사회의 안정된 정착을 위해 그들이 알고 있는 현재의 성 지식 수준을 파악하여 그들에게 현실적이고 체계적인 성교육 서비스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도움을 주고, 향후 사회·정서적으로 북한이탈여성을 지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에서 설정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이탈여성들의 성지식 정도를 파악한다.

둘째, 북한이탈여성들의 성교육 경험을 파악한다.

셋째, 북한이탈여성의 연령과 결혼에 따른 성지식의 차이를 파악한다.

## 방 법

### 연구대상

연구는 북한을 탈출하여 한국으로 입국하여 하나원에 입소한 북한이탈여성 3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 자료수집

본 조사에 앞서, 하나원을 퇴소한 뒤 최근에 한국사회에 정착한 북한이탈여성을 대상으로 사전조사를 하여, 북한이탈여성에게 생소한 용어를 북한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바꾸는 등 일부 문항을 수정 및 보완한 후 본 조사를 하였다. 본 조사는 하나원에 입소되어 있는 북한이탈여성 320명을 대상으로 설문지 형식으로 전수조사를 하였으며, 설문조사방법은 본 연구팀이 하나원을 방문하여 교육담당자의 협조를 받아 조사대상자들에게 연구의 목적과 설문지 내용을 설명하고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여 자료 수집을 하였다. 설문지는 320부가 배부하여 모두 회수하였고 이 중 응답이 부실하거나 잘못 기입된 2부를 제외한 318부를 최종분석에 사용되었다.

###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지의 구성은 일반적 특성 22문항, 성지식에 대한 내용 38문항, 성교육과 관련된 내용 4문항 등 총 64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반적 특성 문항은 연령, 북한 학력, 북한 주소, 탈북사유, 북한/중국(경유국)에서의 혼인 상태, 중국(경유국)에서의 동거가족, 탈북/입국

시기, 중국에서의 동거가족, 한국동반가족 등의 내용으로 이루어졌다.

### 성지식

성 지식 측정도구는 윤선규(1990)가 번역한 Leaf와 Reed(1983)의 SKAT(Sexual Knowledge and Attitude Test)를 호선민(2000), 허은주(2004) 등이 연구에서 수정 및 보완하여 사용하였으며, 이것을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이 측정도구는 4개의 영역 - 임신 및 출산, 성행위, 성기관, 성병과 건강 등의 하위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의 성 지식의 신뢰도 계수 값은 .85로 나타났다. 성지식의 각 문항은 정답은 1점, 오답은 0점으로 처리하여 38 점을 만점으로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올바른 성에 대한 지식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 성교육

성 교육에 관한 문항은 북한에서의 성교육 경험 여부, 하나원에서의 성교육에 대한 만족도, 남한사회에서의 성교육 필요 여부, 향후 받고 싶은 성 교육 등의 문항으로 이루어졌다.

### 분석방법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 백분율을 사용하였으며, 성 지식에 대한 분석에서는 성 지식 문항의 정답을 채점하여 맞는 답과 틀린 답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연령과 성지식의 차이를 분산분석(anova)을 통해 분석하였고, 결혼 경험에 따른 조사대상자들의 성 지식 수준차이는 *t-test*로 검증하였다.

표 2. 조사대상의 인구학적 특성

항목	구분	빈도(명)	%	
연령	10대	1	.3	
	20대	70	22.0	
	30대	137	43.1	
	40대	78	24.5	
	50대 이상	17	5.3	
	무응답	15	4.7	
	합계	318	100.0	
북한학력	학교 다닌 적 없음	2	0.6	
	인민학교 졸업	16	5.0	
	고등중학교 졸업 (기능공학교)	247	77.7	
	전문대학 졸업	31	9.7	
	대학교 졸업	11	3.5	
	기타	8	2.5	
	무응답	3	0.9	
	합계	318	100.0	
	북한에서의 혼인상태	미혼	151	47.5
		결혼	77	24.2
이별		42	13.2	
사별		25	7.9	
동거		12	3.8	
기타		1	.3	
무응답		10	3.1	
합계	318	100.0		
중국 (경유국) 에서의 결혼상태	미혼	58	18.5	
	결혼	64	20.4	
	동거	132	42.2	
	매매혼	16	5.1	
	기타	7	2.2	
	무응답	36	11.5	
합계	313	100.0		

수집된 본 연구 자료의 통계적 자료처리를 위해 SPSS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 결 과

응답자들의 연령을 살펴보면 평균연령은 34.9세이고 연령대를 살펴보면 30대가 전체 응답자의 43.1%인 13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40대(24.5%), 20대(22.0%), 50대 이상(5.35%), 10대(0.35%)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무응답자도 4.7%로 조사되었다.

전체 응답자 중 99.4%가 북한에서 교육을 받았으며, 특히 응답자의 90.9%는 북한에서 고등중학교 이상을 마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응답자들의 북한에서의 결혼경험을 살펴보면 응답자의 47.5%가 미혼인 반면 49.1%가 결혼 또는 사실혼의 경험이 있었다.

중국 또는 경유국에서의 결혼경험을 살펴보면 응답자의 18.5%가 미혼인 반면, 67.7%가 결혼/동거 또는 매매혼이었다. 그리고 무응답을 한 응답자도 11.5%로 조사되었다.

### 북한이탈여성의 성지식 수준

응답자들의 성 지식 점수를 살펴보면 38점 만점에 최저 0점에서 최고 31점이 나왔으며, 이들의 평균은 10.47점으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하위영역을 보면 임신 및 출산에 대한 성 지식의 평균이 1.91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성 기관에 대한 성 지식 2.63점, 성병 및 건강에 대한 성 지식 2.66점, 성 행위에 대한 성 지식 3.27점으로 각각 나타났다.

### 연령대에 따른 북한이탈여성의 성지식 수준

응답자들 중 연령이 20대, 30대, 40대에 속하는 290명(91.1%)을 대상으로 성지식 수준을 비교한 결과, 연령에 따라 응답자들의 성 지식 수준이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F=19.83, p<0.001$ ). 20대 응답자의 성 지식 평균점수는 7.1점, 30대 응답자의 평균점수는 11.66점, 40대 응답자의 평균점수는 12.27점으로 연령이 낮을수록 성지식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영역을 살펴보면 먼저, 임신 및 출산은 9점 만점으로 20대 응답자의 평균이 1.15점, 30대 응답자 평균 2.11점, 40대 응답자의 평균 2.52점으로 연령에 따른 임신 및 출산에 대한 성 지식 수준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F=14.88, p<0.001$ ). 특히 “임신 기간 중 성관계” 문항에서 20대 응답자의 평균이 0.03점으로 지식수준이 매우 낮았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임신기간 중 성관계”에 대해 지식수준이 유의미하게 높아졌다( $F=5.23, p<0.05$ ).

성 행위에 있어 응답자의 연령에 따른 성 지식 수준을 살펴보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F=18.18, p<0.001$ ). 40대가 평균 3.96점으로 성 행위에 대한 지식수준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30대가 3.57점, 20대 2.19점으로 나타났다.

성 기관에 관한 연령대에 따른 성 지식 수준을 살펴보면 40대 평균 2.97점, 30대 평균 2.88점, 20대 평균 1.84점으로 연령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F=11.40, p<0.001$ ).

성병과 성 건강에 대한 연령에 따른 성 지식 수준은 30대 응답자가 3.1점으로 가장 높

고 그 다음으로 40대(2.82점), 20대(1.92점) 순으로 나타났다.

북한이탈여성의 결혼경험에 따른 성지식 수준

응답자의 결혼 경험에 따른 성지식 수준을 알아보고자, 응답자를 미혼자와 기혼자를 구분하여 성 지식 차이를 *t-test*로 비교분석하였다. 이 때 기혼자는 북한과 중국 또는 경유국에서 결혼, 이혼, 사별, 동거, 강제결혼, 매매혼 등의 경험이 있는 응답자를 모두 기혼자로 보았다.

미혼자의 성 지식 평균점수는 7.49점인 것에 비해 기혼자의 성 지식 평균점수는 11.04점으로 결혼 경험이 있는 응답자가 그렇지 않은 응답자보다 성 지식 수준이 유의미하게 높아지는 것이 조사되었다( $t=-3.80, p<0.001$ ). 미혼과 기혼에 따른 임신 및 출산에 대한 성 지식 수준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t=-3.08, p<.001$ ). 즉 미혼자의 평균이 1.24점에 비해 기혼자의 평균이 2.04점으로 결혼 경험이 있는 응답자가 임신 및 출산에 대해 성 지식 수준이 높았다.

성 행위에 대한 성 지식 수준도 연령에 따

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t=-4.23, p<.001$ ). 즉 기혼자의 평균(3.49점)이 미혼자의 평균 (2.16점)보다 높아 결혼경험이 있을수록 성 행위에 대한 성 지식 수준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성 기관에 대한 성 지식 수준도 결혼경험이 있는 응답자(2.8점)가 그렇지 않은 응답자(1.71점)보다 성 기관에 대한 지식수준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4.00, p<.001$ ). 성 건강에 대한 미혼자와 기혼자의 지식수준을 보면, 결혼경험이 있는 응답자 평균은 2.73점이고 미혼응답자의 평균은 2.37점으로 기혼자의 평균이 약간 높지만, 유의미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 $t=-1.02, p>0.1$ )

성교육 여부

북한이탈여성들의 북한에서의 성교육 경험 여부 조사에서 응답자의 94%가 성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하나원에서 실시한 성교육의 도움여부에 대한 응답에서는 33.1%가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한 반면 7.3%가 “도움이 되지 않았다”, “보통”(50.2%), “교육을 받지 못했다.”(2.2), “모른

표 3. 연령대에 따른 북한이탈여성주인의 성지식 수준

구분	20대 (N=79) 평균(STD)	30대 (N=138) 평균(STD)	40대 (N=73) 평균(STD)	F
임신 및 출산	1.15(1.30)	2.11(1.71)	2.52(1.73)	14.88**
성 행위	2.19(2.00)	3.57(2.05)	3.96(1.74)	18.18**
성 기관	1.84(1.59)	2.88(1.79)	2.97(1.72)	11.41**
성병과 성 건강	1.92(1.89)	3.10(2.34)	2.82(2.43)	6.99*
성지식 총점	7.10(5.34)	11.66(6.10)	12.27(5.64)	19.83**

\*  $p< .05$ , \*\*  $p< .001$



표 4. 미혼/기혼 북한이탈여성의 성 지식

구분	미혼 북한이탈여성(N=49)		기혼 북한이탈여성(N=267)		T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임신 및 출산	1.24	1.69	2.04	1.67	-3.08**
성 행위	2.16	1.97	3.49	2.025	-4.23**
성 기관	1.71	1.76	2.80	1.75	-4.00**
성병과 성 건강	2.37	2.22	2.73	2.29	-1.02
성지식 총점	7.49	6.2	11.06	6.0	-3.80**

\*\* $p < .001$ 

다”(0.6%), “무응답”(6.6%) 등으로 응답하여, 하나원에서 실시한 성교육이 “도움이 되었다”의 응답률이 “도움이 되지 않았다”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하나원을 퇴소하여 한국 사회 정착을 위해 성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문항에서는 67.9%가 “성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30.8%가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이들의 성지식 점수를 살펴보면 성교육이 필요하다고 한 응답자는 11.3점이 반면 필요하지 않다고 한 응답자는 8.7점으로 평균보다 더 낮은 점수를 가지고 있었다.

성교육의 필요성을 느낀 응답자의 희망하는 성교육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피임”이 15.3%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을 “신체구조”(15.0%), “생리”(14.8%), “임신”(9.6%), “이성교제”(9.6%), “출산”(6.2%), “유산”(4.3%), “사정”(3.2%), “자위 행위”(1.5%) 등으로 각각 조사되었다. 또한 “무응답”도 2.8%를 차지하고 있다.

## 논 의

본 연구는 북한이탈여성들의 성 지식 수준

과 성교육 경험 여부를 살펴보고, 각 연령대와, 결혼경험에 따라 성지식 수준을 살펴 북한이탈여성의 성지식에 대한 실태를 연구하여, 향후 북한이탈여성들을 위한 성교육 서비스 방향을 설정하고, 사회·정서적으로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결과 요약과 그에 따는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이탈여성의 성 지식 수준은 38점 만점에 평균 10.5점으로 매우 낮게 나왔다. 이 결과를 통해 응답자 90.4%가 북한에서 고등학교 이상을 마쳤지만, 성 지식과 관련된 교육은 북한에서 받지 못했음을 예측할 수 있다. 하위영역의 지식수준을 살펴보면 성 행위에 대한 지식수준은 네 개의 하위영역 중 가장 높은 반면, 임신 및 출산에 대한 지식수준은 가장 낮았다. “남녀의 흥분속도”, “남녀의 성욕구 주기”, “임신 중의 성관계” 등의 성 행위에 대한 북한이탈여성들의 지식수준이 높은 것은 응답자의 67.7%가 사실혼을 포함한 결혼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성 경험을 통해 관련 성지식을 습득할 수 있고, 성적 호기심과도 연관이 있는 문항들이 있어서 그렇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여성의 질”, “남성의 사정” 등

의 다소 전문적 지식인 성행위 문항에서는 다소 낮은 지식수준을 보여주고 있었다. 이 결과는 허은주(2004)의 우리나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지식 연구 중 성행위 하위영역의 지식수준에 대한 결과와도 유사하였다.

“정자의 특성”과 “피임”을 포함한 임신 및 출산에 대한 지식은 전문성을 띤 교육 또는 정보를 통해 지식을 습득할 수 있기 때문에 북한에서 또는 제3국에서 체류하는 동안 임신 및 출산에 대한 교육 및 정보 공유의 기회가 없었던 북한이탈여성들에게는 임신 및 출산에 대한 지식수준은 매우 낮을 수밖에 없다. 임신 및 출산에 대한 지식은 성관계에 따라 가족계획을 할 수 있고, 원치 않는 임신과 이에 따른 낙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교육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성 기관 하위 영역 중 “여성의 요도와 질의 위치”의 지식수준이 높았는데 이것은 응답자 전원이 여성이고, 경험으로 지식을 습득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남성의 염색체”, “난소 위치” “아기집” 등의 지식수준은 많이 낮았는데 이것은 응답자들이 경험을 통해 알 수 있는 지식이 아닌, 교육을 통해 알 수 있는 지식이기 때문에, 성교육을 거의 받지 못한 북한이탈여성들에게는 생소한 용어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성병과 성 건강에 대한 지식수준은 임신 및 출산 다음으로 수준이 낮았다. 사실 “성병”에 관해서만 지식수준이 약간 높을 뿐, “키스와 성병”, “성병 치료용 항생제”, “임질”, “매독”, “성병과 청결” 등에 대해서는 지식수준이 낮는데 왜냐하면, 전문적인 지식과 정보를 통해 습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성병과 성 건강의 지식수준이 낮을 경우, 성병예방을 할 수 없고, 발병된 성병에 대해 무지로 안이하게 대

처하여, 심각한 부인병으로까지 질병이 커져 건강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성병과 성 건강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고 더 나아가 정기적인 건강검진이 필요하다.

둘째, 연령에 따른 북한이탈여성의 성지식 수준을 20대, 30대, 40대로 분류하여 성 지식 수준을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전체적으로 낮은 지식수준이지만, 연령이 높을수록 유의미하게 성지식 수준이 높았다. 이 결과는 학년이 높을수록 성지식 수준이 높게 나타는 연구결과(김명옥, 1984; 윤귀임, 1983; 이귀현, 1985; 정아영, 1991; 한경희, 1991; 박애신, 1992; 허은주, 2004; 김진희, 김경신, 2008)와 일치하고 있다. 하위영역 경우, 임신 및 출산, 성행위, 성 기관 등에 대해 연령이 높을수록 성지식 수준이 정적인 차이가 있었으나, 성병과 성 건강 경우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못했다. 임신과 출산에 있어서도 전체적으로 낮은 지식수준이지만, 연령이 높을수록 성지식 수준이 높은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것은 연장자일수록 임신과 출산 경험을 통해 지식을 습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부분 미혼인 20대인 경우, 임신과 출산에 대한 지식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성 행위에 대한 호기심이 높아 또래친구로부터 부정확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다.

한편, 하나원에 입소한 북한이탈여성의 평균연령은 34.9세로 이들의 성 지식의 평균 10.5점과 우리나라 여자대학생(허은주, 2004)의 성 지식 평균 17점을 비교해 볼 때 북한이탈여성의 평균점수가 매우 낮은 것으로 비교되었다. 하위영역을 살펴보면, 한국의 여대생 경우 성 행위에 대한 평균이 4.1점은 제일 낮고, 성 기관의 평균이 4.5점으로 제일 높은 반면, 북한이탈여성의 경우 임신 및 출산의 평균이

1.9점으로 제일 낮고 성 행위가 3.3점으로 제일 높은 점수로 조사되었다. 우리나라 경우 성 기관 및 성병과 성 건강에 대한 지식은 성 교육과 인터넷을 통한 정보 습득으로 지식수준이 높지만, 임신 및 출산과 성 행위 영역에서는 여대생 대부분이 미혼이기 때문에 관련 지식에 대한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다. 북한이탈여성의 경우 85% 이상이 결혼경험이 있기 때문에 성 행위와 성병과 성 건강에 대한 지식수준이 정확한 정보를 필요로 하는 임신 및 출산, 성 기관에 대한 지식수준보다 상대적으로 높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북한이탈여성의 성 지식 수준은 2004년의 한국 여대생의 지식수준보다 매우 낮은 편이다. 허은주(2004)는 20대에 있어 성 지식의 수준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 사회적 유능감, 대인관계 친화력 등이 성숙된다고 하였는데, 북한에서 성교육을 받지 못한 북한이탈여성들에게 다른 프로그램과 함께 성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아존중감, 사회적 유능감, 대인관계 친화력 등이 향상되어, 보다 안정적으로 남한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20대에 있어서 성교육이란, 결혼 전 젊은이로 하여금 성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갖게 하여 건전한 성생활 태도를 기르도록 도와주고 지도함을 말한다(김현정, 이귀옥, 2000). 이것은 남·녀간의 생리적 차이뿐만 아니라 결혼 생활을 위한 성적 지식의 전달, 광범위한 사람의 생활을 가르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호기심 많은 20대의 젊은 북한이탈여성들에게도 마찬가지이다. 이들은 성에 대한 아무 지식 없이 중국 또는 제3국을 경우하면서 동거, 강제결혼, 매매혼 등의 사실혼 생활을 하다가 한국에 입국하여 보수적인 한국사회와 다양한 성문화에 대해 정체성 혼란을 느끼게

된다. 올바른 성 지식만이 성적 문제를 예방하고 대처하며, 개인의 인식과 가치관 태도를 변화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20대 뿐만 아니라 북한이탈여성 모두에게 성 교육 서비스가 필요할 것이다.

김현정과 이귀옥(2000)은 한국 여대생이 가정에서나 학교에서 학년이 높을수록 더 많은 성교육의 기회가 있지만 체계적인 성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구태의연한 성지식만을 습득하고 있다고 한 것처럼, 20대를 포함한 북한이탈여성들은 북한에서 학교는 물론 가정에서도 성교육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성 지식이 매우 낮을 뿐만 아니라 이들 역시 성에 대해 무관심과 터부시 하며 구태의연한 편이다.

셋째, 기혼자가 미혼자보다 성 지식 수준이 유의미하게 높다. 응답자들을 북한, 중국 또는 경유국에서의 미혼 및 기혼여부에 따라 성 지식의 차이를 *t-test* 으로 비교분석 하였다. 응답자의 결혼경험에 따른 성 지식 수준을 보면, 미혼자의 성 지식 수준이 기혼자의 성 지식 수준보다 유의미하게 낮다. 이것은 진경숙, 이효영, 이선자(2004)와 김진희와 김경신(2008)의 성 경험이 있는 그룹이 없는 그룹보다 전반적으로 성지식 점수가 높게 나타났던 연구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으로 결혼경험이 있는 응답자가 결혼경험이 없는 미혼자보다 성 지식에 대해 많이 알고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임신 및 출산에 있어 미혼자의 평균(1.24점)이 기혼자의 평균(2.04점)보다 유의미하게 낮다( $t = -3.08, p < .001$ ) 즉 기혼자들이 임신 및 출산에 대한 지식수준이 미혼 응답자보다 높은 것은 기혼자들의 임신 및 출산 경험으로 관련 지식을 습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월경기간에 따른 가임기” 문항에 있어서 기혼자의 지

식수준이 미혼자의 지식수준보다 유의미하게 높아 기혼자가 임신기간에 대해 더 잘 알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성 행위에 대한 성 지식 수준도 역시 기혼자의 지식수준이 미혼자의 지식수준보다 높아 결국, 결혼경험이 있을수록 성 행위에 대한 지식을 많이 알게 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성관계시 남성의 흥분속도”, “임신 중의 성관계” 등의 문항에서 기혼자의 지식수준이 미혼자의 지식수준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나, 이 분야는 결혼경험이 있는 응답자와 결혼경험이 없는 응답자간에 뚜렷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 기관에 대한 성 지식 수준도, 기혼자가 미혼자보다 높다고 볼 수 있다. “난소의 위치”, “질과 요도의 위치”, 등에 대한 문항에서 모두 기혼자 지식수준이 미혼자의 지식수준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 그러나 성병과 성 건강에 대한 미혼자와 기혼자의 지식수준을 보면, 기혼자의 평균은 2.73점이고 미혼자의 평균이 2.37점으로 기혼자의 평균이 약간 높지만,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결과는 미혼자들도 중국 또는 경유국에서부터 성문화에 노출되어 있었기 때문에 성병과 성 건강에 대한 지식수준이 기혼자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넷째, 북한이탈여성들은 성교육을 받은 경험이 매우 낮은 것을 연구조사를 통해 알 수 있었다. 하나원에 입소한 북한이탈여성주민들의 북한에서의 성교육 경험에 관한 문항에서는 응답자의 94%가 성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였고, 응답자의 0.6%가 성교육을 받았다고 응답하였다. 이 사실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북한이탈여성들의 성지식 수준이 낮은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이다.

다섯째, 현재 하나원에서 제공하는 성 교육

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33.1%가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한 반면 59.7%가 “보통” 또는 “교육을 받지 못했다”라고 응답하여, 하나원에서 실시한 성교육이 북한이탈여성들에게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한 것을 알 수 있다. 하나원에서 제공하는 성 관련 교육은 “건강한 생활”의 한 내용으로 하나원에 입소하여 매 기수마다 교육받는 프로그램이다. 성에 대해 터부시하면서 북한생활을 해 오던 북한이탈여성들에게 한국에 입국하여 하나원에서 제공한 성 교육은 북한이탈여성들을 당황스럽게 만들고, 용어 면에서 생소하여 잘 이해하지 못하게 하였다.

여섯째, 향후 하나원을 퇴소하여 한국 사회 정착을 위해 성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조사결과, 응답자의 67.9%가 “성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30.8%가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이들의 성지식 점수를 살펴보면 성교육이 필요하다고 한 응답자의 성 지식 수준이 필요하지 않다고 한 응답자의 지식수준보다 높았다. 이 결과를 통해 성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는 응답자는 성 지식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성 지식을 습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성교육의 필요성을 느낀 응답자를 대상으로 희망하는 성교육 분야를 살펴보면 피임, 신체구조, 생리, 임신 등의 순으로 욕구가 조사되었다. 이 욕구들은 이번 연구에서 낮은 지식 수준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며, 또 전문가의 교육이 필요한 부분임을 알 수 있다. 특히 피임에 대한 욕구가 가장 컸는데 이것은 응답자들이 한국사회에서 생활할 때 성관계로 인한 원치 않는 임신을 예방하고 싶어 함을 예측할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북한이탈여성을 대상으로 성지식 교육 서비스가 시급하다. 위의 연구결과에서 나타나듯이 북한이탈여성들은 북한에서 성교육의 기회가 거의 주어지지 않아 이들의 성지식 수준이 매우 낮음을 알 수 있었다. 북한이탈여성들은 가부장적인 북한사회에서 살다가 북한을 탈출하여 한국에 바로 입국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북한을 탈출하여 중국 또는 제3국을 통해 한국에 입국하는 과정을 거치고 더군다나 이들은 중국이나 제3국에서 숨어 지낼 때 발각되어 북송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현지인 또는 조선족과 원치 않는 사실혼 관계로 지내다가 한국에 입국한다. 북한사회에 비해 한국사회는 생활환경이 급속하게 발전하고 성에 관한 무분별한 정보와 지식이 범람하고 이로 인해 건강하지 못한 성이 상품화 되어 한국사회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성 지식이 거의 없는 북한이탈여성들에게는 특히 이러한 성문화에 대해 가치관의 혼란과 함께 쉽게 노출되어 성 취약계층으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올바른 성교육을 통해 정확한 성지식을 갖게 하여 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 가치관, 태도 등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북한이탈여성을 위한 성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때, 북한사회가 남한사회보다 가부장적 성향이 심해 남한여성들이 생각하는 성에 대한 인식과 차이가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우리는 이 연구조사 과정에서 북한이탈여성들이 성에 대해 금기시하고, 꺼려하며 부끄러워하고, 성 지식 관련 용어를 처음 접하는 경우를 보았기 때문에 좀 더 효과적인 성교육 서비스를 개발하는 데 있어 북한이탈여성에 대한 문화적 차이를 인식하고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 서비스가 고려되어야 한다.

셋째, 성지식이 매우 낮은 미혼 또는 20대

북한이탈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교육 서비스가 필요하다. 더군다나, 20대 북한이탈여성들은 하나원 퇴소 후 한국사회의 밤 문화와 성 문화에 접할 기회가 많고 또한 쉽게 빠질 수 있는 세대이다. 청소년 후기 또는 성인초기인 20대는 남녀의 성역할에 대한 사회화가 뚜렷이 나타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20대의 북한이탈여성들을 대상으로 이들이 갖고 있는 성 지식 수준을 바탕으로 이들의 교육 욕구를 파악하여 이에 적합한 성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더군다나 성 지식에 대한 왜곡된 정보는 20대 북한이탈여성들에게 단편적인 흥미와 함께 심리적 호기심으로 필요이상의 많은 정보들을 습득하게 하고, 이것이 인격형성에 장애를 가져다 줄 수 있으며, 원치 않는 성관계를 통한 임신과 성병 등 성적 피해를 입힐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고, 성범죄에 대해 스스로 예방할 수 있도록 성교육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넷째, 결혼경험이 있는 북한이탈여성을 중심으로 상담과 함께 성교육 서비스를 제공한다. Eshelman(1998)은 보호받지 못하는 성관계가 성병질환이나 임신 등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여성들이 신체적으로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하였다. 중국 또는 제3국을 경유한 북한이탈여성들도 마찬가지로, 북송되지 않으려고, 현지인 또는 조선족과 동거를 하게 되고 원치 않는 임신과 낙태를 경험하게 되어 심리적으로 신체적으로 불안을 경험하게 된다. 그러므로 이들에게 상담과 함께 성교육 서비스를 제공하여, 심리적·신체적 불안을 감소시키고, 건전한 성 가치관을 가질 수 있게 한다. 송정아와 최혜영(1999)은 남녀의 생리적 특징과 서로의 성역할을 이해함으로써 성에 대한 건전한 태도를 형성하여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시키고 건전한 가치관으로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 대처할 수 있도록 자기 통제력을 기르게 한다고 하였고, 김영희 (1992)는 임신 및 출산에 대한 성 지식 습득은 성 관계에 의한 가족계획을 할 수 있고, 성충동, 원치 않는 임신과 이에 따른 낙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처럼 성교육 서비스는 결혼 경험이 있는 북한이탈여성들이 한국사회에서 건강한 성생활을 할 수 있게 하고, 더 나아가 자녀에게도 올바른 성지식을 교육할 수 있게 한다.

다섯째, 북한이탈여성의 전반적인 성 지식 수준에 대한 기초 자료를 제공한 본 연구를 바탕으로 앞으로 북한이탈여성의 성 지식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인과 종속변인들을 구체적으로 설정하여 보다 실증적인 연구가 다각적인 측면에서 계속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김영희 (1992). 청소년의 성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영란, 김혜영 (2000) 남·북한 여성의 사회의식에 관한 비교연구 및 수렴방안. 아세아여성연구. vol.39, 211-250.
- 김진영 (2005). 기혼여성의 성행동 및 성만족도와 결혼만족도.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진희, 김경신 (2008). 대학생의 성에 대한 지식 및 태도가 성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vol.13(1). 123-18
- 김태현, 노치영 (2003). 북한이탈 여성들의 삶 이야기; 해석학적 현상학을 통한 중국생활 체험 분석. 대한가정학회지. 7(2), 129-160.
- 김현정, 이귀옥 (1998). 여자 중학생의 성지식에 관한 연구. 논문집 19(2).
- 김현정, 이귀옥 (2000). 남녀 청소년의 성지식 차이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학회, 7(2). 161-181.
- 문숙재, 이명근, 김지희 (2000). 북한여성들의 탈북동기와 생활실태 - 중국연변지역의 탈북여성들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8(5), 137-152.
- 박애신 (1993) 청소년의 성에 대한 태도와 성지식에 관한 연구" 서울시내 여고생을 중심으로.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 송정아, 최혜영 (1999). 청소년기 성교육 프로그램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4(1), 39-59.
- 윤귀임 (1982) 남·여 고교생의 성지식 및 태도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석사논문.
- 윤선규 (1990) 성상담원의 성에 대한 지식과 태도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 이귀현 (1985) 성교육 후 일개 고등학교 여학생의 성에 관한 태도 및 지식변화에 관한 연구: 서울시 일 남녀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 이금순 (2006). 여성이주자의 사회적응과정 연구(북한이탈주민 사례를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 45(1) 191-234.
- 이새롬 (2003). 북한이탈여성의 남한사회 조기 정착 방안. 민주 평화통일 자문회의 여성분과위원회 회의 자료.
- 이소래 (1997) 사회적 지지가 남한이주 북한이탈주민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

- 향. 청소년상담연구, 5(1), 209-247.
- 이영희, 박미라, 송미숙, 유진희, 최순남, 한유미, 황윤정 (1997). 대학생 성지식과 성교육에 관한 연구 - 인천시 일개대학을 중심으로. 한국간호과학회, 27(1), 26-35
- 이희영 (2007). 한·중·일 청소년의 성지식, 성태도, 성행동 및 성교육 비교분석. 강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장혜경, 김영란 (2001). 이탈주민가족의 가족 안정성 및 사회 적응과 여성의 역할. 한국여성개발원.
- 전경숙, 이효영, 이선자 (2004). 대학생의 성지식, 태도, 행동실태 및 성교육 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 p.45-68.
- 전우택, 민성길 (1997). 북한 청소년에 대한 이해. 통일연구 1(1), 141-173.
- 정아영 (1991) 여고생의 성에 대한 지식, 태도 및 관심도에 관한 조사. 충남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대학원 석사논문.
- 정태연, 김영만 (2004). 남한사회에서의 생활경험이 탈북자에게 미치는 영향: 남한과 자신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0(3). 61-81.
- 제성호 (2007). 북한여성 인권의 실태와 과제. 통일문제연구. 47. 177-206.
- 조영아, 전우택 (2005). 탈북여성들의 남한사회 적응문제: 결혼경험자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0(1).17-35.
- 최성일 (2008). 경기도 새터민 정착지원 방안연구.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 우남식, 가영희 (2005). 한, 미 대학생의 성지식과 성태도 및 성행동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10(2). 113-133.
- 하나원 (2009). 건강한 생활. 통일부 하나원 교육기획과. 양동문화사.
- 한경희 (1991) 중등 학생의 성지식 실태와 성교육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 허은주 (2004). 대학생의 심리·사회적 성숙 변인과 성태도 및 성지식과의 관계 연구. 교육학박사학위청구논문.
- 호선민 (2000). 남·여 대학생의 성지식, 성태도 및 성행동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 통일부 사이트 (2009). <http://www.unikorea.go.kr/>.
- Clark, E. & Coleman, J.C. (1992) Growing up fast. London:Department of Health
- Eshelman, J. R. (1998). The family: an introduction. 5th edition: Allyn and Bacon, Inc
- Lief, H. & Reed, D. (1983). Design and Analysis of Child Development. New York: Basis Books.
- Winn, S. & Roker, D. & Coleman, J. (1995). Knowledge about Puberty and Sexual Development in 11-16 Year-olds implications for health and sex education in schools, *Educational Studies, Vol 21*, No2. 187-202

1 차원고접수 : 2010. 2. 05.  
 심사통과접수 : 2010. 3. 16.  
 최종원고접수 : 2010. 3. 24.

## **A study on sex knowledge among north Korean female**

**In Young Han**

Graduate School of Social Welfare  
Ewha Womans Uni

**Hyeon Ja Ku**

Div. of Social Welfare  
Korea Christian Uni.

**Sun Kyung Oh**

Graduate School of Social Welfare  
Ewha Womans Uni

The study aimed to find out level of sex knowledge among Female North Korean Defectors. We asked their level of sex education, sex related knowledge, and their need for further education on birth control, and human sexuality, and sexually transmitted disease. All of the current female residents in Hanawon, 320 North Korean Defectors were researched with organized questionnaire. We found out that they had limited sex education, limited knowledge on birth control, STD, and human sexuality. They manifested need for further education especially on birth control, human sexuality, and how to have better sex with male. There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age group and marital status regarding their knowledge. We suggest that effective sex education is needed for female North Korean Defectors to prevent them to become sexually vulnerable.

*Key words : North Korean defector, North Korean refugee women, sex knowledge, sex education*